

참가보고서

윤재호¹

1. 개요

- 1) 명 칭 : 고령친화산업포럼 주거산업분과 발표 – CO House
- 2) 일 시 : 2008년 7월 24일(목)
- 3) 장 소 :
- 4) 홈페이지 : <http://www.nihonfukushi-u.jp/coe/kaigi/yotei.html>

2. 내용

1) CO House의 정의

코하우징은 협동주거(Collaborative Housing)라는 의미를 지닌다. 1970년대 초에 덴마크에서 시작되어, 유럽에서는 코하우징 외에도 이와 유사한 개념의 집합주거(Collective Housing)와 스웨덴의 커뮤널 하우스(Communal Housing)의 개념이 함께 있었다. 코하우징과 커뮤널 하우스는 일하는 취업주부들을 위한 주택형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덴마크에서 시작된 코하우징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함과 동시에 그동안 유럽사회에서 이어져 온 커뮤니티 내 이웃관계를 강조하는 새로운 주택 유형이었다. 이러한 코하우징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미국사회에서 뿌리내리기에는 무리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최초로 코하우징의 개념을 소개했고,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코하우징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찰스 듀렛(Charles Durrett)과 캐서린 맥카먼트(Kathryn McCamant)가 코하우징에 관한 두 권을 책을 내면서, 미국의 중산층 사이에서 코하우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코하우징은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공동시설의 계획 및 공동운영, 근린주구 디자인의 응용, 주민참여방식의 개발과정, 완전한 주민참여형 운영 등의 네 가지 특성을 가진다. 코하우징은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공동시설을 공유하고 강한 유대감을 가지며, 각 단위주택에서는 그들만의 개인생활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가지면서 동시에 공용식당과 같은 시설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한다. 코하우징의 단지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특징적인 생활이 일주일에 2회 정도 계획되는 공동식사이다. 이와 더불어, 거주자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보는 공동탁아와 취학 전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및 놀이방 시설의 운영, 방과 후 아이들이 학업이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².

2) 발표내용

전반적인 CO House에 대한 내용의 발표와 외국의 사례 그리고 한국의 사례등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¹ 일본복지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석사과정(二木立지도, 보건의료복지복합체 연구중), jehoyun@welfare.or.kr(KOR), jehoyun@hotmail.com(JPN), www.jehonara.com

² 건축문화 2004년 9월호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실패한 경험이 발표 내용에 포함되기도 하였으며, 참여자들 중 건축 분야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국의 사례에 대해 비판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발표한 사례 또한, CO House의 정의에 맞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노인주거분야에 대안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싶었다. 사례에 대한 나열 그리고 외국의 다양한 주거문화에 대한 사례에 대해 발표한 내용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3. 결론

현실적으로 한국에서의 CO House는 고령주거방식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북구 혹은 서양의 인식과 다르게, 한국의 경우 유산문제가 가장 큰 장애로 볼 수 있고, 보안 등의 문제로 인해 이웃간의 단절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힘들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발표자도 한계에 대해서 언급 하였지만, 정확하지 않은 실패한 사업내용을 굳이 발표하였는지 의문이고, 그 안에서 어떠한 대안을 찾을 수 없었던 부분이 아쉬웠다.

포럼의 참여는 2006년 이후 처음인데, 참여자가 매번 새로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인상이 깊었으며,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수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것이 비즈니스 포럼의 한계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겠으나, 포럼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단지 비즈니스 포럼의 한계를 뛰어 넘는 학습포럼으로 자리를 잡아야지 않나가 생각했다.

이러한 우려는 포럼 운영진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번 발표가 그 시작점이 아닌가 생각 해보았다.